Panel Dom-2

『東明』に掲載された〈朝鮮洋楽の夢幻的来歴〉について

『동명』에 게재된 <조선양악의 몽환적 내역>에 관하여

『東明』第 1 巻第 13 号から第 16 号まで 4 回に渡って掲載された〈朝鮮洋楽の夢幻的来歴〉には、どのように朝鮮唯一の西洋式軍楽隊が作られ、後で京城楽隊に縮小されたのか、二十余年の歴史が詳細に著述されている。

この記事は匿名の一記者によるものであるが、軍楽隊の成立過程とエッケルトに関する詳細な情報と説明の正確さを勘案すると、エッケルトのドイツ語通訳を経て彼の弟子となった白禹鏞が原著者である可能性が非常に高い。

この記事が提供している情報は、日本経由で知られるエッケルトに関する情報とかなり異なっている。エッケルトの出身、略歴、人柄に関する情報は、所々に見られる誤りや勘違いにもかかわらず現実的で、真実に近いようにも見える。

この記事の意図は解体の危機にあった京城楽隊を救うため読者に訴えかけることであった。こうして少数のメンバーでやっと活動を継続してきた京城楽隊は 1930 年に白禹鏞の没後完全に解体したのである。

『동명』 제 1권 13호에서 16호까지 4회에 걸쳐 게재된 <조선양악의 몽환적 내역>은 조선의 유일한 서양식 군악대가 만들어지고, 후에 경성악대로 축소되는 20여년의 역사를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이 글의 필자는 무명의 일기자로 되어 있지만, 군악대의 형성과정과 에케르트에 대한 상세한 정보 및 설명의 정확도를 감안할 때, 에케르트의 독일어 통역자이었으며 나중에 제자가 된 백우용이 원저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글이 제공하는 정보는 일본에서 알려진 에케르트와는 상당히 다르다. 에케르트의 출생과 약력 그리고 인품에 관한 이 글의 정보는 간혹 나타나는 착오 및 오류에도 불구하고 사실적이고, 진실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의 의도는 해체의 위기에 있는 경성악대를 구하고자 독자에게 호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소수의 멤버로 겨우 연명해오던 경성악대는 1930년 백우용의 죽음 이후 완전히 해체되었다.